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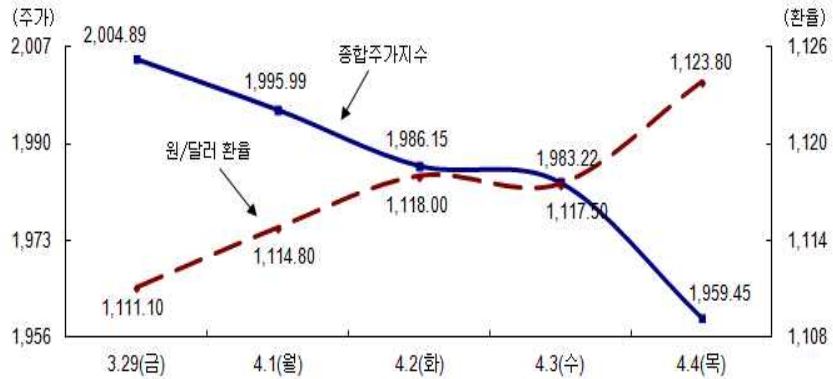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아시아 중산층을 잡아라!
- 아시아 중산층 증가와 수요 변화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29~4.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아시아 중산층을 잡아라 !	1
- 아시아 중산층 증가와 수요 변화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 성 : 이 부 형 수석 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 임 연구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아시아 중산층을 잡아라 ! - 아시아 중산층 증가와 수요변화

■ 부상하는 아시아 중산층

빠른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를 배경으로 아시아 신흥국의 중산층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OECD에 따르면 아시아 중산층 규모는 2020년에 17.4억 명에 달해 세계 전체 중산층의 54%를 차지할 전망이다. 이는 2009년 5.3억 명에서 약 3.3배 증가한 수준일 뿐 아니라 세계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54%로 약 26%p나 증가한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의 소비규모는 2009년 약 50억 달러에서 2020년에 148억 달러로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여 세계 소비 비중도 23%에서 42%로 급상승할 전망이다.

■ 아시아 역내 수요 변화

아시아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소비시장은 내구재와 사치재 소비가 증가하고 문화콘텐츠나 관광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자동차나 IT제품과 같은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과 인도, 아세안 시장이 2012년 2,470만 대에서 2017년에는 3,670만 대로 48.6% 증가할 전망이며, IT 기기 및 통신기기 시장도 2014년에는 세계 전체 시장규모의 약 3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시계, 어패럴, 화장품 등 해외 럭셔리 상품과 같은 고급 사치재 소비도 급증할 전망이다. 중국, 인도, 태국 등의 럭셔리 상품 시장 규모는 2020년에 2010년 대비 15~23% 확대될 것이다. 셋째, 문화와 관광 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 수는 2010년 2억 45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억 5,800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도 2011년~2015년 사이에 연평균 6.5%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아시아 중산층의 수요패턴 변화로 통신, 이동 등 관련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아시아 역내에서는 2010년부터 2020까지 연평균 4,926억 달러의 신규 인프라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며, 총 약 8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식량과 에너지 등 자원소비가 증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량이 2030년에는 2011년의 1.6배 수준에 달할 전망으로 국제유가도 2015년에는 평균 95달러에서 146달러 수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또, 아시아를 중심으로 식량 소비도 세계 식량 소비보다 빨리 증가하여, 향후 쇠고기 같은 주요 식품 가격이 급등할 우려도 상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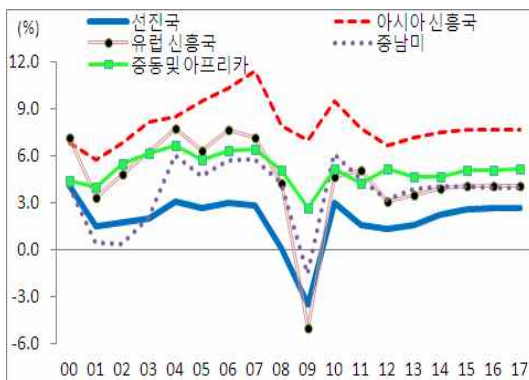
■ 시사점

아시아의 중산층 급증으로 아시아 역내 소비시장에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변화를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삼는 한편, 위협요인에는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째, 아시아 중산층 증가에 따르는 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장기 시장 공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업은 아시아 고객 변화에 대한 통찰을 통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등 아시아 중산층을 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식량과 에너지 같은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된 위협에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해야 한다.

1. 소득 증대가 기대되는 아시아 신흥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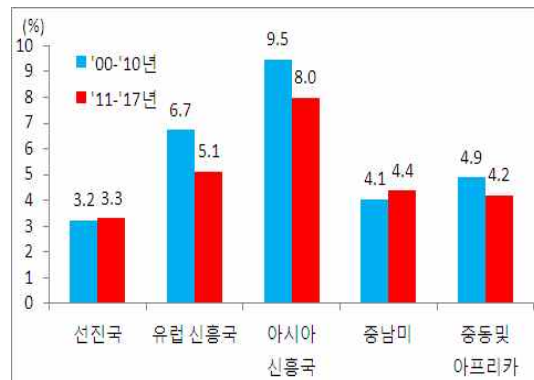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 경제의 빠른 성장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이들 국가들의 소득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
- IMF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신흥국뿐 아니라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등 세계 신흥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신흥국들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평균 8%대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더욱이 중남미 3%대 후반, 중동 및 아프리카 5%대 등 신흥개도국 지역이 선진국(2000~2017년, 약 2%)에 비해 훨씬 빨리 성장할 것으로 예상
- 이처럼 빠른 성장세를 배경으로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소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되면서 세계 소비시장의 중심도 이동될 것으로 전망
 - 2000~2010년 선진국 1인당 연평균 GDP 성장률(ppp 기준, 이하 동)은 3%대 초반에 그친 반면, 아시아 신흥국은 동기간 9%대 중반을 기록
 - 또 2011~2017년간 아시아 신흥국 1인당 GDP 성장률이 8%대를 상회,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소득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지역별 실질 경제성장률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 지역별 1인당 GDP 증가율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주 : 1. 기간별 연평균 성장률임.
 2. PPP 기준임.

2. 아시아 중산층 규모 및 소비 급증

- (아시아 중산층의 부상) 2030년 세계 중산층 규모는 세계 인구의 57.3%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아시아 중산층은 66%에 달할 전망
 - OECD(2010)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 대비 중산층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30년에는 약 57%에 이를 것으로 전망
 - OECD(2010)는 중산층을 2005년 ppp 기준 연평균 지출 규모가 3,650달러에서 3만 6,500달러에 속하는 가구로 정의
 - 이에 따르면 세계 중산층 인구는 2009년 18.5억 명에서 2020년 32.5억 명, 2030년 48.8억 명으로 증가
 - 세계 중산층 규모는 대부분의 신흥개도국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특히 아시아 중산층이 급증할 것으로 기대
 - 아시아 중산층은 2009년 5.3억 명에서 2030년 32.3억 명으로 6.1배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세계 전체 중산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28%에서 2020년 54%, 2030년 66%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세계 중산층 규모 및 비중 추이 >

지역	2009		2020		2030	
	중산층 (백만명)	비중 (%)	중산층 (백만명)	비중 (%)	중산층 (백만명)	비중 (%)
북미	338	18	333	10	322	7
유럽	664	36	703	22	680	14
중남미	181	10	251	8	313	6
아시아	525	28	1,740	54	3,228	6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	2	57	2	107	2
중동과 북아프리카	105	6	165	5	234	5
세계 중산층	1,845 (27.0)	100	3,249 (41.7)	100	4,884 (57.3)	100
세계 인구	6,829		7,800		8,517	

자료 : Homi Kharas,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285, OECD Development Center, June 2010;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0 Revision DB.

주 : 1. ()는 세계 인구 대비 세계 중산층 인구 비중임.

2. 2005년 PPP기준 지출을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를 추계.

-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시아의 중요성 증대) 아시아 중산층 규모 급증으로 아시아 역내 소비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소비시장으로서의 아시아의 중요성이 증대할 것임
- 아시아 중산층의 대 세계 중산층 소비 비중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
 - 아시아 중산층의 소비 규모는 2009년 50억 달러에서 2030년 326조 달러로 크게 확대되면서, 2009년에 23.0%에 불과했던 세계 중산층 소비 규모 대비 아시아 중산층 소비 규모 비중이 2030년에는 59.0%로 확대될 것임
 - 북미, 유럽 중산층의 소비 비중은 각각 2009년 26.0%, 38.0%에서 2030년 10.0%, 20.0%로 축소될 전망
 - 한편, 중동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중산층 소비 규모 대비 세계 중산층 소비 규모 비중은 2030년까지 일정하게 유지되나,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

< 세계 중산층 소비 규모 전망 >

(단위 : 백만 달러)

지역	2009		2020		2030	
	소비 규모	비중 (%)	소비 규모	비중(%)	소비 규모	비중(%)
북미	5,602	26	5,863	17	5,837	10
유럽	8,138	38	10,301	29	11,337	20
중남미	1,534	7	2,315	7	3,117	6
아시아	4,952	23	14,795	42	32,596	59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56	1	448	1	827	1
중동과 북아프리카	796	4	1,321	4	1,966	4
세계	21,278	100	35,045	100	55,680	100

자료 : Homi Kharas,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285, OECD Development Center, June 2010.

주 : 2005년 PPP기준으로 지출 규모 추계.

3. 아시아 역내 시장 변화

- (소비패턴 변화로 아시아 역내 소비시장이 크게 변화할 전망) 향후 소득 증가에 따라 아시아 중산층의 소비성향이 음식료, 의류잡화 등의 필수 소비재 중심에서 자동차나 첨단 IT제품, 해외명품과 같은 사치재 등과 같은 선택적 소비재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내구재 소비 증가) 전반적인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료나 의류잡화 등 필수 소비재에서 자동차나 휴대폰 등의 내구재 소비가 증가할 전망
 - 아시아 역내 자동차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IHS Automotive와 東洋經濟(2012. 12. 5)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판매 규모는 2012년 7,900만 대에서 2017년에는 1억 대 이상으로 2,100만 대 이상 증가 전망
 - 이 중 중국, 인도, ASEAN과 같은 아시아 주요국 비중이 57%에 달할 전망
 - 아시아 역내 IT기기나 통신 기기 시장의 소비 규모도 크게 확대될 것임
 - EIU에 따르면, 2000년 아시아의 IT 및 통신기기 수요 규모는 세계 전체 시장 규모의 14.0%인 약 7천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세계 전체 시장 규모의 36.8%인 4.1조 달러로 약 6배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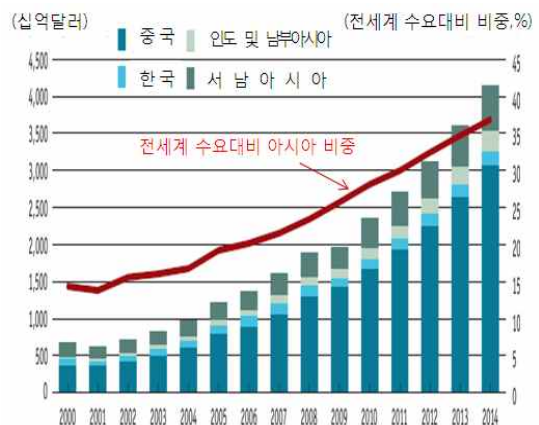
< 주요 국별 자동차 판매규모 전망 >

(단위 : 만 대, %)

구 분	2012년	2017년	증가율
미국	1,400	1,700	21
브라질	350	490	40
일본	490	450	-8
중국	1,900	2,800	47
인도	310	530	71
ASEAN	260	340	31
러시아	270	330	22
독일	330	350	6
세계	7,900	10,000대 이상	

자료 : IHS Automotive; 東洋經濟(2012. 12. 5), pp. 34-35, 재인용.

< IT 기기 및 통신기기 수요 전망 >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ing Consumption, Rising Influence*, 2011.
 주 : 중국은 대만과 홍콩 포함.

○ (사치재 소비 증가) 향후 내구재 뿐 아니라 시계, 어패럴, 화장품 등 해외 럭셔리 상품과 같은 사치재의 소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을 포함 아시아 중산층의 브랜드 선호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
 - 최근 중국인들은 유명 외국 브랜드를 선호하는데 실제로 글로벌 화장품 회사인 암웨이가 중국 시장의 화장품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최근 시세이도, 랑콤과 같은 외국 유명화장품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세계 럭셔리 상품 시장도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시장에서 급성장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인도의 사치재 시장 규모는 2010년 각각 90억 유로, 10억 유로에서 2020년 740억 유로, 30억 유로로 증가할 전망
 - 이 기간 중국과 인도의 사치재 시장 규모는 세계 사치재 시장 연평균 성장률 9%보다 훨씬 빠른 23.0%, 15.0%씩 증가할 것임
 - 반면에 이미 사치재 시장 규모가 크게 형성된 미주지역, 일본 등의 선진국 사치품 시장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고급화장품 시장점유율 추이 > < 주요국 럭셔리 상품 시장규모 전망 >

구 분	2005	2007	2009
암웨이	28.9	22.7	23.0
시세이도	2.9	4.4	7.3
랑콤	4.5	5.5	6.9
에스티로더	2.9	4.4	5.0
판클	0.3	2.0	3.3
클리닉	1.8	2.3	2.5
고세	2.3	2.4	2.3
샤넬	1.3	2.0	2.2
디올	1.6	1.9	2.0
기타	53.9	52.6	45.5
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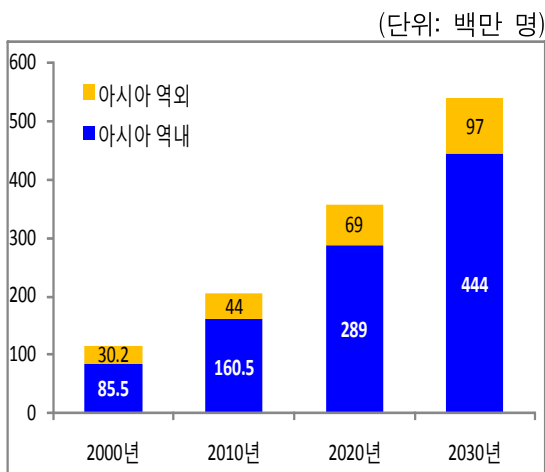
구분	2010년 (십억유로)	2020년 (십억유로)	연평균 증가율(%)
미주 지역	50	82	5
유럽	62	121	7
일본	18	26	3
한국	6	13	8
중국	9	74	23
인도	1	3	15
태국	1	3	15
마카오	1	7	27
세계	168	385	9

자료 : Euromonitors, Financial Times, 1 March 2011 재인용.

자료 : CLSA, *Wealth Asia*, September, 2011.

- (문화·관광 산업 성장 기회 확대) 아시아 중산층들의 소득 수준 증가는 아시아 역내 문화·관광 소비 증대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아시아 중산층들의 소득 수준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관광 소비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
 - 아시아 국가들의 관광객 수는 2010년 2억 450만 명에서 2020년 3억 5,800만 명으로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2030년에는 5억 4,1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
 - 이 가운데, 아시아 역내 관광객 비중은 80%대 전후로 예상
 - 또한, 아시아 신흥국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문화콘텐츠 소비 의욕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011년 4,107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5,407억 달러로 연평균 6.5%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특히, 영화, 방송, 게임 부문 콘텐츠 시장의 2011-2015년 연평균 성장률은 8.0%대 이상으로 타 문화콘텐츠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

< 아시아 여행객 규모 추이 >



자료 : 중국 CEIC; UNWTO, *Tourism Towards 2030: Global Overview*, October, 2011.

<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 규모¹⁾ >

(단위: 십억 달러)

구분	2007	2011	2015	'11-'15 연평균 (%)
영화	17.3	21.0	29.0	8.0
애니메이션	2.8	3.7	5.0	5.2
방송	71.6	88.9	127.4	8.5
게임	14.6	24.4	38.7	11.8
음악	8.5	6.3	6.1	-3.0
출판	102.1	100.8	115.3	2.7
만화	2.8	2.7	2.8	0.4
광고	106.9	111.6	154.6	7.2
지식정보	105.5	143.2	182.7	5.9
캐릭터	11.6	21.9	28.4	5.4
전체	341.1	410.7	540.7	6.5

자료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백서 2011, 2012년 9월.

1) 영화, 방송, 게임, 출판, 지식정보콘텐츠 시장 규모에는 각 분야별 광고시장 통계치가 합산되어 있으며, 이 금액은 광고 분야에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합계에서는 중복 부분 제외.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시장 규모는 각각 영화, 방송, 출판시장 규모에도 포함되어 있어 전체 합계에서 제외.

- (인프라 수요 증대) 아시아 지역의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아시아 역내에서 는 경제성장에 따른 인프라 수요는 물론 아시아 중산층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르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
- 자동차와 휴대전화 소비 증대 등과 같은 아시아 중산층들의 소비 성향 변화 는 아시아 역내 이동통신, 도로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수요를 증대시킬 것임
- 2010~2020년 사이 아시아 역내 연평균 신규 인프라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전력 3,378억 달러, 도로 1,547억 달러, 이동통신 165억 달러 등 총 4,926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수요(2010~2020년 누적) >

(단위 : 10억 달러)

구분	신규투자	개·보수/유지 투자	계
전력	3,176	912	4,089
통신	325	730	1,056
이동통신	181	509	691
고정통신	144	221	365
교통·수송	1,762	704	2,466
공항	7	5	11
항만	50	25	76
철도	3	36	39
도로	1,702	638	2,341
물·위생	155	226	381
위생	108	120	227
수도	48	106	154
계	5,419	2,573	7,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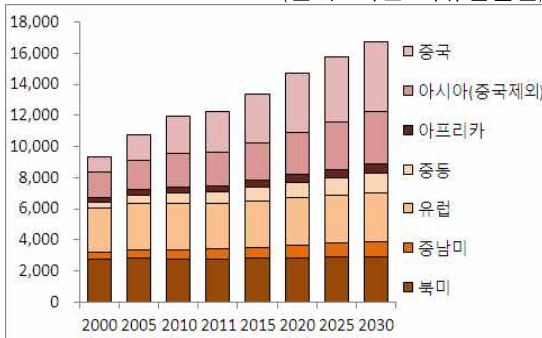
자료 : ADB&ADBI,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2009.

- (에너지와 곡물 등 자원 소비 증대) 아시아 중산층이 증가하면서 냉난방 이나 자동차 등에 필요한 에너지나, 육류와 곡물 등 식량 소비 증가 등의 리스크가 증대할 우려도 상존
-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소비량 급증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리스 크 요인 발생 우려
- 중국, 인도 등 아시아의 에너지 소비량이 2030년에는 2011년의 1.6배 수준으 로 급증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소비량도 급증할 전망

- 한편, 에너지 소비 증가로 국제유가는 2015년에 평균 95달러(중립시나리오)에서 146달러(고유가 시나리오)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

< 세계 에너지 소비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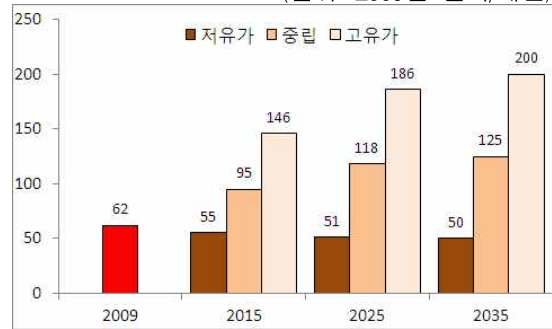
(단위: 백만 석유환산톤)



자료 : BP, *Energy Outlook 2030*, January 2013.

< 국제유가 전망 >

(단위: 2009년 달러/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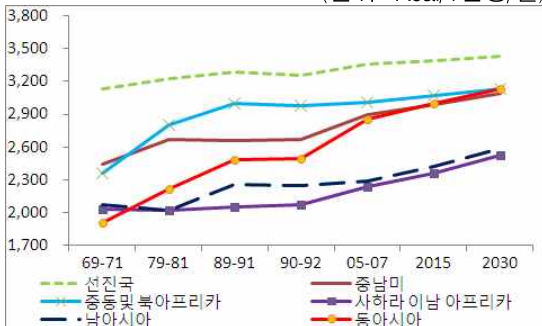


자료 :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1*, 2011.
주 : 2009년은 실적치.

- 한편, 아시아 역내 식량 소비량도 급증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식량 수급 불안도 우려
- 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경우 식량 소비량이 각각 2005~2007년 평균 2,293 Kcal/1인당/일, 2,850Kcal/1인당/일에서 2030년에는 2,820Kcal/1인당/일, 3,220Kcal/1인당/일로 연평균 0.53%, 0.41%씩 증가할 전망이며, 이는 세계 식량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 0.29%보다 빠른 수준임
- 한편, 향후 쇠고기와 같은 주요 육류의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음

< 1인당 식량 소비량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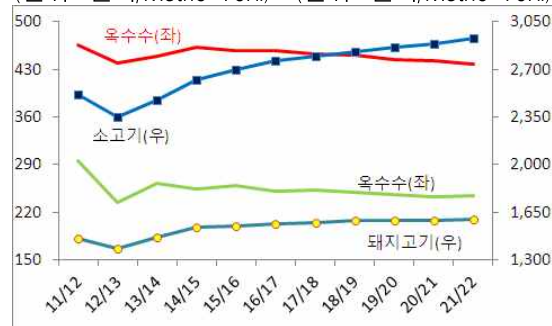
(단위: Kcal/1인당/일)



자료 : FAO, *World agriculture : towards 2030/2050*, 2012

< 국제 곡물가격 전망 >

(단위: 달러/Metric Ton) (단위: 달러/Metric Ton)



자료 : FAPRI-ISU, *2012 World Agricultural Outlook*, 2012

4. 시사점

- 아시아 중산층 급증으로 아시아가 중요한 소비 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으로 향후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소비시장 공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중산층 부상으로 야기되는 변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 바탕으로 신흥국 시장 공략이 필요
 - 소득 증가 이후 발생할 주요 수요부문의 변화를 심층 분석하여, 시장맞춤형 진출 전략의 수립이 필요
 - 특히, 아시아 인프라 시장의 경우, 그동안의 개발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정부 대 정부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임
 - 한편, 인프라시장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등 자본조달 능력이 경쟁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공공부문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자본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최근 확산이 가속되고 있는 한류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 뿐 아니라 한국의 문화콘텐츠 소비 및 관광객 국내 유입 촉진에 힘써야 함
- 식량과 에너지와 같은 자원 부문은 국가 안정보장과 직결된 문제로 중장기 확보 전략을 수립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국제곡물관측시스템의 실용화, 곡물자급도 향상, 해외식량기지 및 국제공조체제 등을 통한 안정적인 곡물 확보 등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
 - 정부, 민간, 공기업이 협력하여 에너지 기업 및 가스 & 오일전 인수와 함께 기술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주개발 물량 확보하면서, 기존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대책 필요
- 기업은 고객 통찰을 통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으로 아시아 중산층을 기업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임
 - 아시아 현지 중산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객에 대한 깊은 통찰과 조직의 민첩성이 매우 중요하며, 글로벌 전략과 현지 운영전략의 조화가 중요

이부형 수석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위원(2072-6220, chungm@hri.co.kr)

<참고 문헌>

Homi Kharas, "The Emerging Middle Class in Developing Countries",
Working Paper No. 285, *OECD Development Center*, June 201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Rising Consumption, Rising Influence - How Asian consumerism will reshape the global electronics industry*", 2011.

東洋經濟, 2012. 12. 5

Amar Gill, CFA, Xun Ming Ip, "Wealthy Asia", *CLSA Asia-Pacific Market*,
September 2011.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Infrastructure for a Seamless Asia*, 2009.

Nikos Alexandratos and Jelle Bruinsma, World agriculture towards 2030/2050:
the 2012 revision, ESA Working Paper 12-03, *FAO*, June 2012.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산업 백서 2011.

UNWTO, *Tourism towards 2030, Global Overview*, October 20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2.

BP, *Energy Outlook 2030*, January 2013

FAPRI-ISU, *2012 World Agricultural Outlook*, 2012.

EIA, *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11*, 2011.

CEIC DB.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4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6	-0.1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2.0	6.1	-0.9	-3.7	0.2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9일	4월 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1.85	1.76	-0.09%p
	엔/달러	77.66	79.37	85.86	94.24	92.97	-1.27¥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2815	1.2843	0.0028\$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579	14,606	27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2,398	12,635	237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52	2.48	-0.04%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11.1	1,123.8	12.7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2,004.9	1,959.5	-45.4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29일	4월 4일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7.13	93.21	-3.92\$
	Dubai	104.89	92.89	107.99	107.07	105.14	-1.93\$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6.39	288.47	-7.9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9	3.5	3.7	2.6	1.5	2.0	3.1
	민간소비 (%)	3.1	1.7	2.4	1.2	2.2	1.7	2.5
	건설투자 (%)	-7.0	-2.6	-4.7	-1.9	-2.4	-2.2	2.2
	설비투자 (%)	9.0	-1.3	3.6	2.3	-6.1	-1.9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1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